

## R-18. 제 3대구치 발거가 인접 2대구치의 치주에 미치는 영향

김태균\*, 장문택, 김형섭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 연구목적

제 3대구치의 발거가 과연 나머지 치주 상태에 이로운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3대구치 잔존 시에는 pericoronitis, 인접 2대구치 치근 흡수와 치주 파괴, 치아 우식 등으로 인접 2대구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여러 연구에서 3대구치 발거는 이른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치주조직 보존에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주환자에서 제 3대구치 발거가 인접 2대구치의 치주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발치한 군과 발치하지 않은 군 사이의 임상, 방사선학적 검사 결과를 비교해 알아보는 것이다.

### 연구 대상 및 방법

치주질환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중 제 2대구치가 잔존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제 3대구치를 2년 이전에 발거한 27개의 인접 2대구치를 실험군, 제 3대구치가 잔존된 34개의 인접 2대구치를 대조군으로 선정하였고, 평균 연령은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39.4세, 39.2세였다.

실험 대상자의 선택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이전에 치은연상 치석제거술 외의 치주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 전신질환이 없는 환자
- 2대구치에 치은연하 보철물이 없는 경우

실험군의 경우 발치를 몇 년 전 시행했는지 조사하였고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모든 제 2대구치의 4개 면(근심면, 협면, 원심면, 설면)에서 치태 지수, 치은 지수, 치주낭 깊이를, 2개 면(근원심면)에서 방사선학적 골소실을 측정하였다.

모든 방사선 사진은 평행촬영법으로 얻은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이용하였고, 사진상에서 골 수준의 측정은 백악법량경계로부터 치조정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간 각 면의 치태지수, 치은지수는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고, 치주낭 깊이와 방사선학적 골소실의 비교는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였다. 실험군에서 발치 당시의 연령과 방사선학적 골소실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을 이용하여 알아보았고,  $p < 0.05$ 의 유의성으로 평가하였다.

### 연구 결과

치태지수와 치은지수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모든 면에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근심면의 치태지수에 있어서는 3대구치가 잔존된 군에서 발거한 군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p < 0.05$ ).

치주낭 깊이에서는 원심면과 협면에서는 대조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보이고 ( $p < 0.05$ ), 나머지 근심면과 설면(구개면)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사선학적 골소실에서 2대구치의 근심면과 원심면에서 측정된 방사선학적 골소실 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조군에서 실험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은 골소실 양을 보이고 있으며 각 군내에서의 원심면과 근심면 사이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p < 0.01$ ).

실험군에서 평균 7.9년 전에 발치 하였고, 발치 된 햇수와 방사선학적 골소실간에는 유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발치 할 당시 연령과 방사선학적 골소실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p < 0.01$ ).

## 결론

- 1) 실험군과 대조군간에 구강위생상태나 치은 염증상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 2) 치주낭 깊이는 대조군의 근심면과 협면에서 실험군보다 깊었고, 방사선학적 골소실에 있어서도 근원심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 3) 실험군에서 발치 당시 연령과 골소실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치료하지 않은 치주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발치가 예상될 때는 이른 시기에 발치하는 것이 인접 2대구치의 치주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것이다.